

바람직한 민간환경교육인력 양성 방안

주 선 회

(사)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1. 바람직한 민간환경교육 인력 양성을 위해

1.1. 구조와 제도의 틀 구성

환경교육은 크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누어진다. 학교환경교육은 학생에 대한 환경교육과 교사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사회환경교육은 환경공무원 및 환경분야종사자의 전문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일반시민 및 청소년들의 환경소양을 높여주고 환경보전 실천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반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환경백서, 2002). 성인환경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은 교사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가르치는 주체인 교사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교과에 환경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에 관련 없이 모든 교사들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만이 교사양성 과정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였고, 현직 이수경험은 더 열악한 실정이다(최석진 외, 1997).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양성 과정에서 환경관련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이수단위를 규정한다. 둘째, 현직 교사들의 연수에 환경교육관련내용이 정규과정화 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교육과 관련한 교사 연구, 실천모임과 활동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NGO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환경관련 공무원과 환경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공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NGO를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사회환경교육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위주로 교육내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주제도 식물탐사, 하천(강포함), 갯벌, 철새, 자연탐사, 환경캠프, 생태기행, 농촌체험, 숲 체험, 공원, 지도자양성과정 등 다양하다. 폭넓고 자유로운 환경교육진행에 비해 NGO 환경교육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지속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요한 원인은 재정이다. 교육재료도 충분치 못하고, 시민들에 대한 전달체계도 미흡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전문가 중심의 지도력을 훈련받은 활동가로 전환하고, 교육재료는 체계적 표준화를 이루고, 사적 시설 이용 부담을 공공시설 활용으로 극복하고, 어려운 재정은 공공재정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개별조직 수준의 전달체계를 환경교육네트워크 등의 공동 정보공간을 설치, 활용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는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의 제16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와 제16조의2(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에 근거하여 학교환경교육 일부와 사회환경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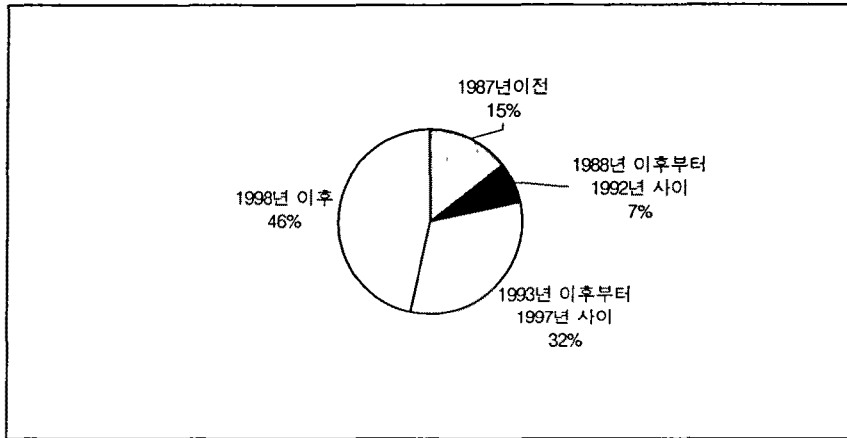
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교육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보다 구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성인학습 투자 확대

사회의 여론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수용하는 노력은 민간단체가 먼저 시도하였다. 1980년대 후반을 거쳐 1990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식 전환을 위해 환경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재개발을 시도하였다. 인지교육 중심이던 환경교육은 점차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체험학습 위주로 전환하였다. 2001년 전국 환경·사회단체 환경교육현황 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진행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평균 5가지 이상이었다. 환경교육에 관한 단체의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주체와 대상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2001).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환경부도 환경관련 공무원과 환경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교육운영체계를 교육운영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체제로 개편하여 교육시기 및 장소를 교육생 편의위주로, 교육과정별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시민환경강좌, 환경캠프, 주부환경교실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강사지원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부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환경보전시범부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 시 소양과목으로 '환경과목'을 개설하였다. 특히 '환경홍보단'을 결성, 운영하여 지역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1.3. 사회환경교육 시행 시기

사회환경교육이 시작된 역사가 1987년 이전이 15%나 차지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사회환경교육의 역사가 짧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하여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992년 브라질 리오선언을 기점으로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고, 사회환경교육 역시 성장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 IMF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1> 환경교육 시작 시기

1.4. 단체 활동가(상근자)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상근자는 대부분의 단체에서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6년 이상의 담당하는 상근자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환경교육분야에서 담당 상근자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환경교육분야에 자기전망을 확고히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전망은 환경교육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연결되기도 한다. 비록 단체별 상근자 분포는 1명 이하인 곳이 민간단체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열악하지만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비상근 인원은 일정한 기반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각 환경·사회 단체에서 연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5회 이상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연간 인원도 매우 증가하였다.

환경교육 강사로 초빙되는 인사는 전문가에 치중하지 않고 단체실무자, 혹은 전문가, 환경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강사로 단체 내 관련 인사나 혹은 관련단체 전문가 그룹 등에서 동원하고 있다. 단체의 환경교육에 참여하는 환경교육전문가의 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이는 사회환경교육분야의 환경교육지도자 양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환경교육전문가는 매우 부족하지만 환경교육을 위한 자체 커리큘럼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필요에 따라 제작하며, 보유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한 교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강사가 필요에 따라 준비 해온 것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지도자 양성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환경교육의 재생산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략 2000년을 전후로 실시되기 시작한 환경운동연합의 에코가이드 교육과 그린체밀리 운동연합 등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사연수 등의 프로그램은 일반인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양성 과정이다. 이런 안내자 과정은 몇 년사이에 급속도로 늘어 현재 대략 30여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방의제가 만들어지면서

점차 지역사회 내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반면에 취학 전 아동의 환경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감안할 때 취학 전 아동 교사에 대한 환경교육지도자 양성활동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교육 이후 형성된 인력풀(자원봉사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1.5. 참여증진

환경교육은 좁게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로 볼 수 있으며 넓게는 국민의식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인의 경우 전자의 경우로 참여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앞으로는 지역중심의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참여의 폭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환경·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경교육이 지도자재교육을 통하여 지역에서 꾸준히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며, 참여단위도 개인에서 가족중심으로 축을 옮겨가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민간단체 혹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환경교육의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제약요인이 되는 장소 및 시설의 확대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환경·사회단체는 각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민간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정부도 이와 같이 사회환경교육을 지역중심으로 양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2001).

1.6. 성인학습분야의 연구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폭넓은 활용가치가 인정되자 환경교육의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전문 연구기관,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다. 환경교육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효율적인 자연관리 방안 개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환경교육학회, 2000). 하지만 이제까지 연구는 교육학적인 측면에 편중되어 있고 학교교육에 치중되어왔다. 설문을 통한 의식과 교육실태조사에 치우쳐진 연구경향을 전문가 양성과 자료개발, 그리고 구체적인 학습방안연구, 프로그램개발, 사이버교육,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방향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인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사이버교육,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환경교육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성인학습과 관련하여 중요한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이다. 점차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일정한 양성과정과 학습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구체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수적인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다. 환경교육에서 자원봉사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성인학습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그 연구결과는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1.7. 성인교육자/촉진자의 위상과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2001년 한 조사에 의하면 환경·사회단체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는 주로 단체 실무자(32.3%), 환경관련전문가(33.5%), 환경교육 전문가(25.3%)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환경교육 전문가 규모는 10명 미만이 조사 단체의 대부분을 차지(75.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2001). 환경교육전문가의 수도 매우 미비하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단체 실무자의 재교육 혹은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환경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성인 환경교육의 지도자는 대체로 학자 위주의 환경관련 전문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문적인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환경·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2003년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환경교육에 있어서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환경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는 환경단체의 성인환경교육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는데, 녹색소비교육, 교사연수, 생태안내자 양성 과정 등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다양한 성인학습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 이수자에 대한 위상 및 역할이 분명치 않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교육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활동을 멈추는 단순 참여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 일부분은 그나마 부분적으로 자원봉사의 형태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원봉사가 가지는 자의성,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환경교육분야에서 뚜렷한 역할과 교육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꾸준한 재교육, 그리고 현장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홍보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교육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1.8.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하기

청소년 환경교육은 대체로 교육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인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교사 연수 및 지도자 양성과정의 경우 어느 정도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단 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에 맞는 교재개발,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교육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프로그램 개설 등이 필요하다. 성인 학습자의 역량 강화는 꾸준한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는 환경·사회단체의 환경교육활동 지원을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내용 또한 사회적 변화와 밀접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유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환경교육은 중요한 매개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환경·사회단체는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환경문제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이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환경·사회단체의 몫일 것이다. 현재 주민자치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대부분 단순한 주부

취미교실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 환경운동연합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에 환경교육강좌를 도입하여 주민모임을 이끌어 냈으며, 현재 다양한 환경·사회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환경교육의 장, 주민참여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 우수사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996년부터 제주도 내에서 한라산케이블카 반대운동을 타 단체와 함께 진행해오면서 한라산 국립공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참여환경연대는 '국립공원 한라산 자연생태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2001년 4월부터 9월까지 <제1회 한라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한라산 국립공원내 관음사 코스에서 식생에 대한 기초 조사, 가이드북 발간 사업을 진행했다. 사전선발과정을 거쳐 제1회 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마친 13명의 교육생들은 2002년 1월 5일 한라산국립공원 자연해설 자원활동가모임인 <한라생태길라잡이>를 만들었다. 이후 <한라생태길라잡이>는 2002년 3월부터 탐방객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자연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2회 양성교육을 마친 6명의 교육생도 <한라생태길라잡이>에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다. <한라생태길라잡이>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한라산을 찾는 도민과 외래 탐방객들에게 한라산 생태계 보전 및 보호의식 제고, 한라산의 자연생태에 대한 학습과 이해 확산을 통해 한라산 생태적 가치를 공유, 체계적인 한라산 자연생태 관찰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이 그것이다.

환경문제와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 각 지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이다. 각 지역모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습의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이러한 실천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자료의 제작과 보급을 통해 생태론적인 환경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다룬 다양한 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교육이 과학적 기술주의로 접근하여 빠질 수 있는 피상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보다 생태론적인 교육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계간 '녹색교육'을 통하여 이론적인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북, 수원, 안산, 마산, 여수, 해남, 홍성, 속초, 장흥 총 21개 지역 1,0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1.10. 2009년까지 향후 활동 및 구체적 목표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누고 있지만, 환경교육의 무게중심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환경교육에 있다. 성인환경교육을 특성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학교교육에서 교사, 사회환경교육에서 환경전문인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목적 및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성

인 환경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전체 성인 환경교육의 목표 하에 학교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특성에 맞는 세부 목표와 전략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및 환경·사회단체는 지속적인 성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는 환경교육이 평생학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과 교육내용 연구·개발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환경교육에 대한 개인 혹은 민간단체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환경교육진흥법'에 구체적인 성인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환경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도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체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으로서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는 각 동마다 마련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임 결성을 유도하고, 네트워크화 한다. 자원봉사 참여를 넘어서는 생태지도자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 사회환경교육 내의 인력

2.1. 사회환경교육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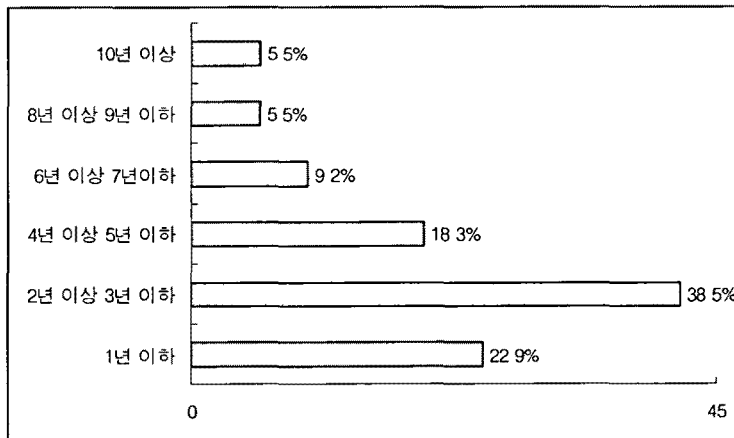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실무자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상근과 비상근의 비율이 63.1:36.9(총 176명)로 조사되었다. 상근 실무자의 수를 살펴보면 1명이 55.9%, 2-3명이 34.2%를 차지하고 있다. 3명 이내가 90.1%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상근 실무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1명이 24.6%, 2-3명이 32.3%, 4-5명이 13.8%, 6-7명이 12.3%, 8-9명이 4.7%, 10명 이상이 12.3% 나타내고 있어 상근 실무자의 인원분포보다 넓게 퍼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상근 형태로는 3명 이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비상근 형태에서는 10명 이상도 12.3%를 나타낼 정도로 인원별 분포가 골고루 퍼지면서 넓게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사회환경교육에 있어서 비상근 형태의 실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상근 실무자를 통하여 사회환경교육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표 1>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수

	상근		비상근	
	응답자수	비율 (%)	응답자수	비율 (%)
1명 이하	62	55.9	16	24.6
2~3명	38	34.2	21	32.3
4~5명	8	7.2	9	13.8
6~7명	3	2.7	8	12.3
8~9명	-	-	3	4.7
10명 이상	-	-	8	12.3
합계	111	100	65	100

2.2. 단체 내 사회환경교육 근속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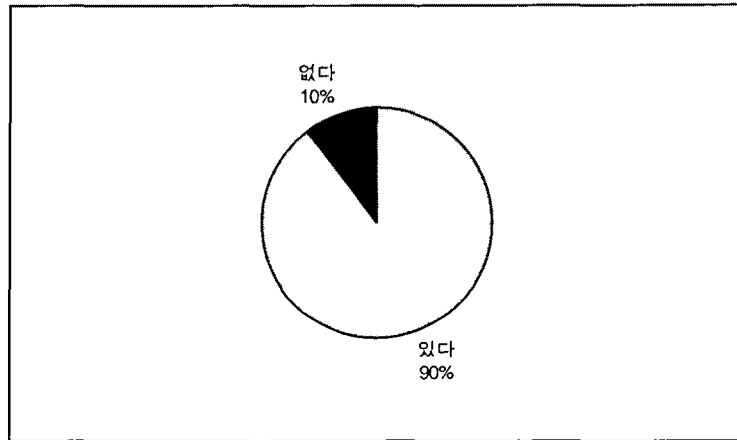
단체 내 사회환경교육 담당 실무자의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2년 이상 3년 이하가 38.5%로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1년 이하가 22.9%를 차지하고 있다. 4년 이상 5년 이하도 18.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년 이상도 20.2%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환경교육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단체 내 환경교육담당자의 근속년수

2.3. 사회환경교육 담당자의 지속성

사회환경교육 담당 실무자의 5년 후 근속에 대한 희망여부를 묻은 결과 90%가 근속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환경교육담당자의 5년 후 근속 희망여부

2.4. 환경교육 강사

환경교육 강사는 단체실무자 32.3%, 환경관련전문가 33.5%, 환경교육 전문가 25.3%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타 단체 실무자도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단체의 환경교육 강사 (중복선택)

	응답수	비율 (%)
단체실무자	79	32.3
환경관련전문가	82	33.5
환경교육전문가	62	25.3
타단체실무자	22	9.0
합계	245	100

단체 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단체 외 환경교육전문가 구성을 살펴보면, 단체 내에서는 대졸 담당자가 가장 많았고, 단체 외 외부 전문가로는 대학원 박사들이 많아서 외부 강사 초빙은 주로 박사 등의 전문가로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졸 이하의 단체 내·외 환경교육 진행자도 각각 23명 8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환경교육분야에서 학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3> 단체내·외 환경교육 담당자와 전문가 구성

교육수준	단체 내 프로그램진행·담당자	단체 외 현장환경교육전문가
고졸이하	23명	87명
대학재학	11명	92명
대졸	248명	120명
대학원 (석사)	72명	52명
대학원 (박사)	122명	137명

2.5. 환경교육 전문가 규모

환경교육 전문가 규모는 10명 미만이 7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명 미만이 전체의 91.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단체에서 환경교육 전문가로는 분야별 1명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교육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
10명 미만	84	75.7
10명 이상 ~ 20명 미만	18	16.2
20명 이상 ~ 30명 미만	5	4.5
30명 이상 ~ 40명 미만	2	1.8
40명 이상	2	1.8
합계	111	100

2.6. 환경교육자 초빙경로

환경교육자 단체와 단체관련 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33.3%와 39.5%를 차지하여 단체를 통하여 72.8%를 초빙하고 사회환경교육 전문가 그룹에서 21.2%를 초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타단체에서 초빙하는 경우도 6.1%를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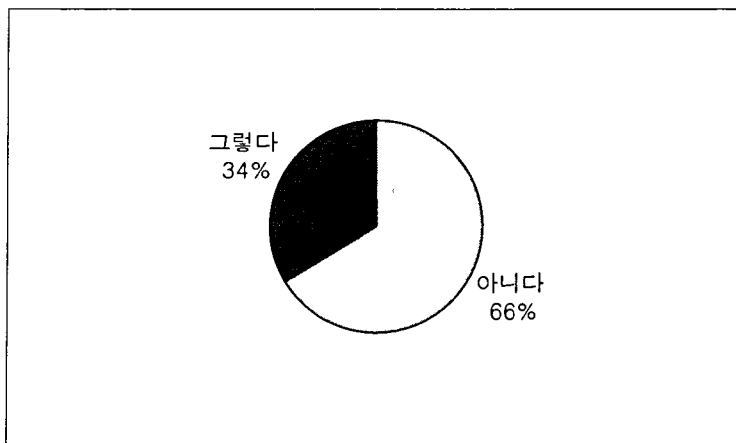
<표 5> 환경교육자 초빙경로

	응답자수	비율 (%)
단체 내에서	38	33.3
단체관련 전문가 그룹에서	45	39.5
타 단체에서	7	6.1
사회환경교육 전문가로	23	21.2
합계	113	100

3. 사회환경교육에서의 지도자양성교육

3.1.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환경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지만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34%,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단체가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34%가 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사회환경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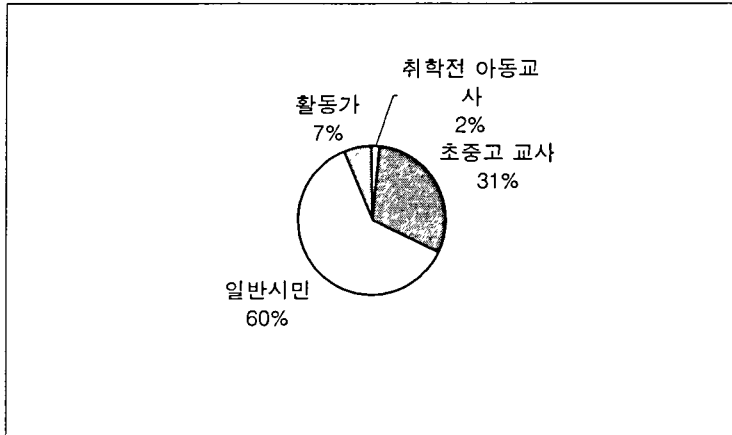


<그림 4> 환경교육지도자양성 프로그램 운영 여부

3.2.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대상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을 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일반시민 60%로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초·중·고 교사가 31%, 활동가 7%, 취학 전 아동교사 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교사가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환경교육을 실행하는 또 다른 주체로서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취학 전 아

동교사를 대상으로 환경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은 전체 2%로 사회환경 수혜대상에서 여전히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의 대상

* 본 글의 자료로 사용한 조사는 2001년 '사회환경교육 현황조사'(시민환경연구소)에 사용한 자료를 기초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단체와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 풀뿌리단체를 대상으로 총 212개 단체에 대해서 전화 조사와 설문을 실시하였다.

· 설문분석은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을 시행하였다.